

광주 도서관에서 '문화 힐링'



무등도서관에서 펼쳐졌던 창작인형극 공연 모습.



광주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의 달 '독서문화행사'. <광주중앙도서관 제공>

문화의 달을 맞아 광주시립도서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 도서관들이 펼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소개한다.

◇산수도서관, 다양한 취미생활 만끽
동구산수도서관은 31일까지 '문화의달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1층 로비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기후 도서 전시인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진행한다. (1~31일) 같은 장소에서 10~24일 열리는 그림책 원화 전시전도 있다. 조미자 작가의 그림책 '수수바의 눈사람 친구' 속 아가자기한 삽화들을 만나는 자리다.

'마음을 그리는 팝아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팝아트 그리기 체험은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15일, 22일 총 2회 개강한다. 토크 뒤는 색감과 표현이 특징적인 팝아트를 직접 그려볼 수 있다.

종이를 활용해 수공예품을 만드는 '페이퍼 크래프트' 체험 시간도 펼쳐진다. 오는 29일(오후 3시) 5층 다목적실에서 종이공예 기술을 배우고 종이꽃 액자를 만든다. 25일(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식물이 선사하는 문화 힐링, 사직도서관
10월 한 달간 작가강연과 힐링정원 꾸미기, 독후활동으로 채워지는 남구 사직도서관 문화의달 프로그램들도 이목을 끈다. 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

오는 12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작가와의 만남

산수·사직·무등·중앙도서관
이달말까지 문화의달 행사 풍성
작가와의 만남·정원 꾸미기 등
취미·문학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행사가 열린다. 12일(오후 2시)에는 '식물인문학자'라는 주제로 정재경 작가를 초대, 글쓰기와 삶의 루틴 및 실내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영애 작가의 '플라스틱 섬'은 같은 장소에서 27일(오후 2시 30분) 7세~초등학교 4학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플라스틱 섬', '모두 다 꽃이야' 등을 펴낸 이 작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힐링 원에 테라피'와 '한글과 놀아볼까요?' 등 두 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있다. 각각 성인과 초등 2~5학년층을 대상으로 12일, 20일 다목적실에서 펼쳐지며 힐링정원을 꾸미고, 독후활동(보드게임)을 할 수 있다.

◇배움의 꽃 피어나는 무등도서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특강 및 전시회를 선보이는 무등도서관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유화 전시 '시선 머무르다'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로비(1층)에서 진행한다. 같은 날부터 이달 말까지 '자료실 테마도서 전시'라는 주제로 가

을에 어울리는 시집, 취미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서를 전시할 예정이다.

류현주 작가와의 만남은 19일 소회의실에서 펼쳐진다. '반드시 성공하는 가족독서모임'이라는 내용으로 성인 20명과 가족 독서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끝으로 27일 무등 작가가 7~10세 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광화문의 해치, 근정전의 사방진 등을 모티브로 무등 작가가 펴낸 '괴물들이 사는 공평'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 10월, 지역 도서관이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다양한 전시회 등으로 물들 예정이다"며 "바쁜 와중 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중앙도서관 좋은 책 읽어주기
이와 광주 중앙도서관은 오는 26일까지 '좋은 책 읽어주기' 및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로 지역민을 만난다. 1층 유아열람공간에서 진행.

원데이 클래스인 '과일청 만들기'는 12일(배움터 5) 총 2회 마련된다. 신선한 과일로 과일청을 직접 만드는 자리이며 오는 4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10월 행사에 앞서 중앙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 행사도 진행했다. 책의 구절을 이용한 '편지쓰기 특강'부터 '모루 쫄면 만들기', '저학년 대상으로 '독서퀴즈 이벤트' 등으로 채워졌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버스킹 월드컵' 인도 바울 몬 1위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골든 버스킹상(1위)에 인도 뮤지션 바울 몬이 선정됐다. 상금은 5000만 원.

총 58개국 781팀이 참여한 이번 경연은 온라인 예선을 통해 32팀을 선발, 지난 6일 결선을 치렀다.

바울 몬은 수상 소감에서 "경연에 참가한 모든 음악가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면서 "광주에서 음악을 매개로 특별한 경험을 안고 돌

아가게 돼 영광이다"고 했다.

실버 버스킹상(2위)은 요르단 예술가 '암만트리오'가, 브론즈 버스킹상(3위)는 독일 어쿠스틱 듀오 '스콧&라일라'가 차지했다.

이 밖에 스페인의 라틴음악 듀오 '마갈리 사레와 마넬 포르티아'와 '연희점추리'에게 총장 버스킹상(4위)이 돌아갔다. 그중 국내 팀인 연희점추리 밴드는 내년도 해외음악축제 또는 영상제작 지



원 혜택을 받는다.

버스킹월드컵 이정현 총감독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든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음악적 역량을 펼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도 예술 계승 '다섯 명인·명창' 무대

국립남도국악원, 12일 진도 예인전 '귀향' 신영희 명창 등 한자리



신영희, 강송대, 김주홍, 박강열, 김병천

남도잡가, 진도북놀이 등 전라도에서 전승되는 예술에는 특유의 풍취가 깃들여 있다. 이들 남도 예술을 계승·보존해 온 다섯 명인·명창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진도 예인전 '귀향'을 오는 12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연다. 진도 출신인 김주홍, 박강열, 김병천 명인을 비롯해 신영희, 강송대 명창이 우리 민영을 선사하는 자리다.

공연의 막은 김주홍의 '비나리'로 열린다. 인간들의 일상사에 방해가 되는 액살을 물리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았다. 이어지는 '소낙비'는 빗소리를 묘사하는 장구 합주곡이다. (사)노름마치예술단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김주홍은 우리 음악에 대한 연구자, 해외 공연과 축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신영희의 판소리 '심정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황성으로 향하는 심봉사의 모습을 담았다. 신 명창은 화관문화훈장

을 받았으며 (사)남도민요보존회 이사장 등을 맡아 국악 발전에 힘쓰고 있다.

강송대는남도 풍류객들의 기품이 담겨 있는 '육자배기', '흥타령'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전남도무형유산 남도잡가 보유자인 강 명창은 제2회 전국남도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박강열·김병천이 '진도 북놀이'를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두 유파인 양태옥류와 장성천류를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박 명인은 양태옥류 진도북놀이 보유자이며 의신민속전수관 대표로 있다. 진도씻김굿·진도다시래기 이수자인 김 명인은 장성천류 진도북놀이 보유자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남도의 예술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다섯 명인, 명창을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흥겨운 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합주곡, 판소리의 운치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여류문학회 연간집 나왔다

김양순 작가 특집 다뤄...시·수필·소설·동화 수록

전남여류문학회(회장 정혜진)의 연간집 제32호 '달고 싶은 하늘'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시와 동시를 쓰고 있는 김양순 작가를 조명했다. 뭉치 불편한 가운데서도 열정과 사랑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작가의 작품과 문학세계를 다뤘다.

김양순 시인은 광주전남아동문학상과 우송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명금문학회장을 역임했다. 문학추진작가회, 안국아동문학회, 전남여류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은순 부회장은 '꽃처럼 화려한 마음을 담은 김양순 시인'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김양순 시인은 일상의 삶을 자기만의 시어로 표현하는 작가다. 거친 삶 속에서도 마음을 정리하고 어려움을 잠재우는 천성이 많은 심성을 지녔다"며 "힘겨운 삶에 지칠 만도 한데 스키는 나뭇잎 하나에도 사색에 잠긴다"고 평한다.

회원들의 다양한 시와, 동시, 수필, 동화, 소설 작품도 수록돼 있다.

강금미, 류은자, 명인아, 박준임, 임춘임, 조선희 등 시인들의 시와 고운자, 김은순, 민금순, 박성애, 정혜진, 최해자 시인의 동시도 만난다. 김



미, 김은순, 나순옥, 박애금, 배성희, 배평순, 이매흔 수필가의 수필을 비롯해 정소영, 정영숙 동화작가의 동화 그리고 김용매, 노성애, 심경숙 소설가의 소설도 게재됐다.

정혜진 회장은 "예술성이나 철학적 깊이가 갖는 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작가가 쉽게 작품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생명력과 혼이 들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라며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일 또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할 일이며 성취감을 얻는 활동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간집에는 제2회 전남여류문학상 시상식, 제31회 어린이 글짓기 교실, 제31회 어린이 효행글짓기대회 시상식 등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